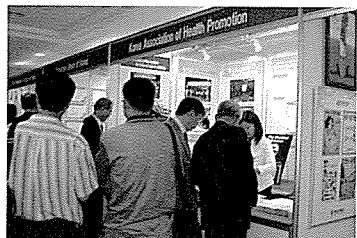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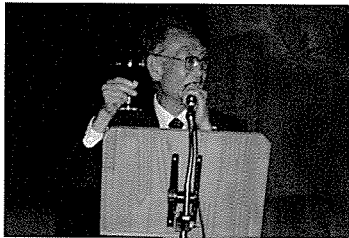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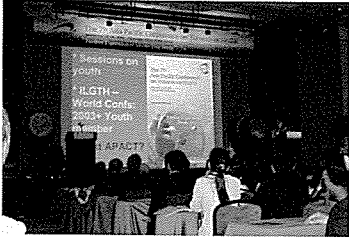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 공동 주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APACT)가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대한결핵협회의 공동 주최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세계보건기구의 공동 후원으로 38개국,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APACT)는 1989년 6월 10일 대만에서 담배 수입압력을 받고 있던 아시아 지역 10개국이 모여 결성된 이후 3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담배 없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번 금연대회 주제는 “금연구역

확장”(Further Expansion of smoke Free Areas)으로 금연구역의 확장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으며, 이밖에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 흡연과 건강에 대한 인권, 흡연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 여러 가지 흡연 문제들의 발표와 제안을 통해 폭넓게 다루어져 FCTC 제정 후 각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번 금연대회 기간동안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각종 금연관련 자료배부, 패널 설치 등 각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에 적극 앞장섰다.

2004년도 한·몽골 건강증진 시범사업단 파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4년도 한·몽골 건강증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김상인 회장, 홍창의 고문(서울의대 명예교수), 조한익 부회장(서울의대 교수), 협회 직원 등 9명의 시범사업단을 지난 9월 6일부터 13일까지 몽골에 파견하였다.

이번 건강증진 시범사업단 파견에서는 울란바트라 제15학교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몽골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검사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몽골 내 보건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건강증진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폴·홍콩 직원 국외연수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허윤영 기획조정국장을 단장으로 이우광 경북지부 사무국장, 이춘성 건강증진부장 등 직원 11명이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홍콩 직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직원 국외 연수단은 홍콩 보건교육·건강증진중심, 중문대학, 싱가포르 건강증진원 등을 방문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관련시설을 견학하고 건강증진과 관련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사회 조직 등과의 협력 방안을 적

극 모색하였다.

직원 국외연수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관련시설 견학 및 조사 등을 통해 직원 자질향상, 협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사기함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부 박준영 사무국장,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장 받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사무국장이 지난 9월 7일 63세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장을 받았다.

박준영 국장은 그 동안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며, 이 외에 경기도지부 문희수 대리가 공로상을 받았다.